

# 한국의 주부와 개발의 정치학\*

*Jubu, Politics of Gender, and Nation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켄트 주립대 정치학과  
조 교 수 데니스 하트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Kent Stat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Dennis Hart

## 〈목 차〉

- |                   |                               |
|-------------------|-------------------------------|
| I. 주부의 “개발”       | IV. 현대적인 주부역할을 배우기            |
| II. 가정에서 노동력인구로   | V. 국가적 개발, 개인적 문제, 그리고 집단적 반응 |
| III. 현대 주부와 현대 가정 | 참고문헌                          |

## 〈Abstract〉

Today in modern Korea, the preferred modern social role for many modern women is that of modern housewife. This move to the role of housewife is a change in more than just a role; it also reflects a deep and fundamental change that has taken place in the social and economic roles of married women.

This shift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gender roles they help produce speaks of a deep and profound process of transformation for all of Korea. Traditionally, a woman was a member of a family premised upon group production as well as group consumption. The role of *jubu* is derived almost exclusively from market forces and bases her identity and actions upon those forces. This distinction is crucial because it means Korean women are finding that they are no longer as central to the existence of the family. Modern life situations have altered a woman's role by making consumption, not production by the woman herself, the keystone of modern families.

◆ key word: 주부, 개발, 산업화, 성역할, 사회화, 소비문화, 현대주거, 국가담론

\* 좋은 제안과 도움 주신 서울대학교 주부연구소장 이기영 교수님 및 여러 연구원들, 엄영래, 김선미, 이승미, 조영희, 송해림, 이재인 선생님과 두분의 익명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1. 주부의 “개발”

분명 국가<sup>1)</sup>는 이 나라의 전국적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분명히 국가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역할에 관한 담론과 이야기들을 개발하는데 대해 계속 신경을 써 왔다<sup>2)</sup>. 현대의 제 문명국과 문명사회들은 각기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켰다든지, 반대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방식”을 명시했다든지, “봉건적 굴레”에서 여성을 해방시켰다든지, 아니면 “봉건적 제약”들을 연속화시켰다든지, 경제적 기회를 여성에게 개방했다거나 아니면, “순전히 도구적으로 여성들을 노동에 동원했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여성정책이나 여성관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Kandiyoti, 1994: 376). 이들 중 어떤 입장을 선호하든간에 결과적으로는 한 민족(또는 한 나라)의 정체성과 한 민족의 여성성, 남성성 (“national gender”)에 대한 이야기(narratives)가 창출되어 일상생활 차원에서 경험되고 따라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담론(state narrative)<sup>3)</sup>이 여성성, 남성성의 도식을 반영한다든지, 한국여성들이 민족의 상징으로 혹은 희생자로 혹은 문화적 표지로 혹은 국국적 여장부로 이용된다든지 하는 (Moon, S., 1998: 33-35) 단순한 관찰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를 이미 읽고 들어 알고 있다. 국가가 어떻게 남여 역할을 만들어 냈으며 한국여성들이 어떻게 이 담론들을 종종 생활속에서, 부분적으로는 주부로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실 더 흥미로운 남은 과제이다.

젠더 즉, 성정체감과 성역할은 국가적인 개발과정의 필요조건이자 결과로서 조장되고 이용된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람들은—그리고 정부는—자기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신념을 재정의 하고 재편성해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의 물리적 현실이 바뀌면 일상생활과 자기 자신(the self)에 대한 문화적인 설명도 바뀌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업 한가지는 일관성이 있으면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문화의 일부로서 수용할 수 있는 담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Hart, in press, Chapters 1 & 7).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마주하고있는 새로운 환경과 국가의 개발정책에 모두 “적합한” 남녀 역할(gender)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노동, 주거지,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론에 의한 남성성, 여성성의 사회적 구성도 변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국가가 주도한 개발은 산업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남녀역할을 조장했다. 생산이 집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와 대조적으로, 도회지 가부장은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직장으로 출근한다. 이러한 도회지 가부장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집에 머물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족을 돌보는 도회지 주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의된 주부의 역할이 없이는 도시 가부장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부는 가족을 돌봄으로써 국가의 노동 수요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 주부 역할은, 요약해 말하자면, “가부장제 구조내에서, 그리고 신분위계의 재구성 과정”속에서 만들어졌다 (Abelmann, 1997). 자본주의적 개발이 가져온 직접적 환경의 물질적 조건들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양식은 국가가 제공하는 성역할 담론을 재확인하게 하여 더욱 견고하게 한다<sup>4)</sup>.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생겨나고 일반적으로 수용

1) 이 글에서 다른 부가적 설명이 없는 경우 보통 “국가”(state)는 한국의 국가 (South Korean state)를 지칭한다. “한국국가”라고 쓰는 분들도 있으나 반복적이어서 이 글에서는 국가라고 줄여쓴다. 여기서 국가란 한국이라는 일국의 행정, 사법, 입법기관을 포괄하는 공식적, 위계적 통치조직을 의미한다. (역자 주)

2) 본논문의 일부는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제 1회 국제심포지움 “주부 가족 사회”(서울대학교, 2000년 6월 30일)에서 발표되었다.

3) 국가가 화자 또는 작가로서 생산한 담론으로서 여기에는 교과서등 국가가 관리 또는 인준하는 글과 국정연설등의 공식 담화등 광범한 형태가 포함된다. (역자 주)

되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기 마련이며 한국의 주부 역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과정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물리적 조건과, 일찌기 배운 신념과 사회적 구성 (constructions), 그리고 집합적 정체감과 사회속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는 광범하게 받아들여지는 담론들이 모두 통합되고 모순없이 일치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에서 국가가 주도한 개발로 인하여 일반 여성들이 “전통적인” 상황으로부터 경제개발에 직접 기여하는 도시 생활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과정을 살펴본다.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상과 새로운 물리적 환경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일상생활의 실천적 반응 (a lived response)으로서 주부 역할을 논의할 것이다. 이로써 주부의 역할은 거시적인 국가적 개발의 직접적 산물인 물리적 근접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한가지 논리적인 “선택”으로 제시된다. 이 부분에서는 또한 대중 매체에서 나타나는 여성성과 남성성, 가정, 주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과 잡지의 광고속에서 주부의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세째로, 주부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일상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성역할과 개발에 관한, 널리 공유되는 담론(shared narratives)에 대한 사전지식을 필요로 함을 논할 것이다 (Ellul, 1974: 25-32). 이 부분에서 국가가 감독하는 교육이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성역할을 재확인시키고 장려하는 것을 예시하려한다. 국가가 검정한 교과서는 현대 주부들이 행하는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삶의 경험과 매끈하게 일치되는 일상생활에 관한 지배담론(master narrative)을 생산하는 데 일조한다. 끝으로 국가적 개발과 주부 역할 사이의 연계가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개발과 현대적 주부상이라는 이 두가지 모두가 바람직한 목표로 칭송되고 있지만 한국이 이 두가지 인위적인 구성물을 국가정책으로서 집요하게 추구하는 동안 여성들은 어떤 댓가를 치루고 있을까? 오늘날의 한국 여성

들에게 어떤 가능한 대안들이 개방되어 있을까?

## II. 가정에서 노동력인구로

한국의 개발이 여성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가정에 서 시작되지 않았으며 가정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여성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과정은 자본주의적 산업문화를 창출하는 보다 광범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시작되었다. 김승경은 국가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여성들을 가정에서 끌어내어 공장으로 보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공들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전통적인” 여성의 노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성 공장노동자들을 “산업전사”라고 부르면서 “미래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역할을 정당화시키려 노력했다 (Kim, S. K., 1997).

근래 한국의 산업적 성장과정 동안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으며, 국가적 개발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포함했다. 많은 한국인들, 특히 남성들은, 공장과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미혼여성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기존 여성들도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한 다. 1998년에는 기혼여성의 47.3%가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0a). 1960년에는 한국 성인 여성 전체의 28.4%가 경제활동을 했다. 1980년에는 그 숫자가 38.4%로 증가했고 1998년에는 47%였다 (김형욱·주재선, 1999: 160; 노미혜, 1987b: 10;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0a).

여성들은 흔히 방직과 전자 계통의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1980년대 동안 럭키금성 같은 초대형 공장들은 5,0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Spencer, 1988: 56). 이들 여성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는 권력있는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근로 여성의 단 1~2%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1998년까지는 그 숫자가 12.6%까지 증가되었다<sup>5)</sup>. 1996년 통계를 보면 장관급 이상의 정부 고

4) 여기서 필자는 담론과 물질적 조건의 분리 불가능한 순환적 관계를 지적하고 있음 (역자 주)

위관리들 중 단 3%만이 여성이었다 (김형욱·주재선, 1999: 437).

취업 여성들은 또한 장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1980년대 동안 주 평균 근로 시간은 54.1 시간이었으며 1998년에는 약간 줄어 48.6 시간이 되었다<sup>5)</sup>.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의 보수는 남성들에 비해 훨씬 낮다.<sup>6)</sup> 1980년에는 여성들의 평균 임금은 남성들의 33% 내지 50%에 그쳤고 1990년에도 전체 산업 평균이 53.4%에 불과했다<sup>8)</sup>. 1999년에는 약간 높아져 61.7%였다 (김형욱·주재선, 1999: 242-3; 노미혜, 1987b: 26-30; Spencer, 1988: 59-65). 이런 임금 격차의 한가지 원인은 일부 한국사람들의 표현대로 “남자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처자식들을 돌보아야 하고, 더러는 노부모까지 봉양해야 한다. 여성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여성들의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남성들의 임금은 깎일 것이다.”는 믿음에 있을 것이다. 이런 사고는 여성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여성들 역시 가족과 노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이혼의 증가와 다른 여러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가구주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빈곤의 여성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김영란, 1998).

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은, 어떤 이들이 예측했던 것 처럼 “해방”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사실 사람들이 한국의 평균적인 공장이나 직장을 묘사할 때 “해방”이란 단어는 흔히 들을 수 없다

(Spencer, 1988: 55-59). 미혼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 안정을 누리지 못했고 그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흔히 결혼에 이르는 도정의 한 단계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노미혜, 1987a; Cho, U., 1985; Kim, S. Y., 1985: 29; Spencer, 1988, 134-136).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에도 보통 그 자체로 해방으로 이끌지 못했으며 가사 노동자인 동시에 공장 노동자로서의 이중 부담을 견뎌야 했다 (Kim, S. K., 1997: 79-84). 1980년대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로 기혼 여성 근로자들중 절대 다수(한 연구에 의하면 80%)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의 부담을 느낀다고 토론했다 (노미혜, 1987a: 231; Cho, U., 1985: 87-90; Choi, I., 1985: 161-163). 십여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에도 이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취업여성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취업주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취업주부들에게서 더욱 심했다. 고학력 취업주부들의 경우 남편등 가족의 부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부나 파출부의 고용을 통해 가사노동을 일부 해결하는 경향이다 (강이수, 1998; 정일선, 1998).

여기서 좀더 거시적인 논점을 지적하자면, 여성들의 노동력 진입은 흔히 경제적인 필요 때문이었으며 반드시 여성들의 취업요구의 결과는 아니었다. 값싼 노동력이 부족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력의 공급과잉 상태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산업체의 소유주들은 여성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울 수 있었으며,

5) 199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교수들 전체에서 여성 교수가 12.4% 였으며, 판사중 여성은 6.9%, 변호사는 1.6% 였다. 1997년에 의사들중 여성 비율은 15.8%였다 (노신영, 1985: 202-204; Cho, H., 1985: 156, 162; Korean Information Service, 2000). 1988년 봄에 필자가 서울 외곽의 현대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라인과 검사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00% 여성이었다. 반면 감독원들은 전부 남성이었다.

6) 도시의 전일 고용 기혼여성 근로자들은 주평균 67시간을 일하며 농촌지역에서는 59시간을 일했다. 시간제 고용의 경우는 각각 44.4 시간과 36.6.시간이었다 (노미혜, 1987a: 231). 또한 1988년 Women's Labor Congress와 통계청 자료 참조 ([http://mofe.go.kr/ENGLISH/Date/E\\_POLICY\\_ISSUES/9801ef\\_14.html](http://mofe.go.kr/ENGLISH/Date/E_POLICY_ISSUES/9801ef_14.html), 6/6/00). 주당 근로 시간 수의 감소는 최근의 전국적 실업을 상승에서 기인한 듯하다.

7) Ministry of Labor (2000).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건설 노동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53%) 및 사회/대인 서비스직 (53%)이었으며 가장 격차가 작은 부문이 교통/통신 분야 (87.4%)와 교육분야 (70%)였다.

8) 노동부 추정치는 이보다 좀 높는데 모든 산업 분야를 평균할 때 1988년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1.7%였다 (EPB, 1989)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는 결혼 후에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 보냄으로써 여성들을 어머니와 부인이라는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너무 명백히 분리시킬 때 발생할 수도 있을 사회적 혼란을 피하려 했다.

대부분 한국인들의 생각에는 기혼여성에게 적절한 자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78%가 가정에서의 의무가 직장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정자, 1985). 이와 비슷하게 1983년도에 274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에서는 “직업에 몰두하는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꼽은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1988년 10월 23일자; Lee, D. W., 1986: 271).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알아본 1995년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중 24.7%와 남성들의 16.8%만이 여성들도 결혼 및 자녀 양육과 상관없이 취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이수, 1998). 최근의 홍성례와 유영주(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취업주부들의 취업 이유를 알아본 한 조사에 따르면 64%의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를 이유로 든 반면 25%는 자기 개발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 갤럽 연구소, 1987: 34-36; 한정자, 1985: 88-89). 1996년 조사에 의하면 주부들 중 26.2%만이 남편의 수입만으로 가계를 경영할 수 있을 때에도 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어떤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3.2%만이 직업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일한다고 했다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0c).

도시 취업주부의 74.6%가 자신의 취업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노미혜, 1987a: 233). 여성 공원들을 연구한 김승경도 미혼과 기혼 여성 노동자들 모두가 자녀가 생기면 여성은 가정에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Kim, S.K., 1997: 79-81). 그럼에도 이 여성들은

구체적인 잇점으로 부가적 수입원이 있으므로 아이들 옷도 좀 낮게 입힐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를 둔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 경우를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상황”(집에서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는)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거시적인 경제체제의 산물로 보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현모양처의 역할은 가족의 보다 나은 삶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오는 것을 포함한다고 재해석했다<sup>9)</sup>.

이러한 공장 근로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이 부상하는 중산층의 담론이다. 김승경은 자신이 면접한 여성 공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취업의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이 “교육”(34%)과 “자립”(25%) 이었다고 한다. 모순되게도 이 여성들중 대다수가, 적어도 다수가 대학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Kim, S. K., 1997: 33)

### III. 현대 주부와 현대 가정

앞서 이야기 했듯 국가가 주도한 한국의 개발은 가정 밖에서의 여성의 노동에 변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여성들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과 권력은 개발의 과정을 반영하여 개편되었다. 가장 현저한 결과는, 가족과 근접 환경의 정의가 생산활동의 단위였던 것이 소비의 단위로 바뀐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혼 여성을 종종 주부라 부른다. 과거에는 이에 정확히 들어맞는 호칭이 없었다. 가부장적 직계 확대가족 내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유기적인 역할군을 수행한 기혼여성을 지칭하는데 흔히 사용되던 단어는 “안사람”이었다. “안사람”은 일상적인 가사외에도 수공업, 의복짓기, 직조, 농작물 재배경작, 추수등을 포함한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주부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대중 여성잡지에서 자주 쓰기 시작했지만 이는 단순한 단어의 변화가 아니며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9) 이는 일본의 어머니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Chizuko, 1987: 140 참조). 취업과 그 부부관계에 대한 영향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인 조희금,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2000)을 또한 참조할 것.

에서 일어난 심오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하트 데니스, 1990).

주부와 안사람은 둘 다 여성이고, 둘 다 기혼이며, 둘 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 관련된 일을 하며 집 근처에서 소비할 것이 기대되며, 둘 다 그 기대를 실현했고, 둘 다 한국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회적 역할 사이의 이런 공통점은 더 심오하고 근본적인 변형과정을 숨기고 있다. 안사람은 집단생산과 집단소비의 단위라는 전제하에 성립했던 가족의 일원이었다. 주부의 역할은 한국의 경제개발의 결과인 시장의 역학관계에서 거의 전적으로 도출되며 그 정체감과 활동이 근본적으로 시장에 힘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여성들이 가족의 존재자체에 더이상 중심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 구별은 아주 중요하다. 여성자신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현대가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현대생활은 여성의 역할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Chung, D., 1986: 142-148)<sup>10)</sup>.

수입, 여가활동, 교육, 직업, 상품등 한국의 새로운 생산력이 이룩한 모든 것에 있어 중산층 가정의 모형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이상형으로 등장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꿈꾸는 삶을 축약한 것이 바로 중산층 가정일 것이다 (Kim, S. K., 1997: 66-68). 아마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십대소녀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사무직 종사자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sup>11)</sup>. 여대생들이 학벌좋은 전문직 남성들을 치열하게 선호하는 것은 우스개소리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산층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경이로운 기쁨 보다는 불편한 느낌이 더 많고 예상했던 만족감 대신에 알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주부 우울증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흔히 일간신문등에 등장하는 주제이다(신경아, 1998; 한혜경,

1985).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생산단위로서의 가족을 쪼개 놓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부자체를 창출해냈다. 두 과정 모두가 자본주의적 시장이 정의한 가족의 구조란 규범 속에서 일어났다. 이 변화로 인한 한가지 명백한 결과는 문화지체, 즉 사회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서 한국 여성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여성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를 따르도록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성들이 새로운 역할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이런 고전적인 행동과 맞지 않는 것이다 (Lee, D. W., 1986: 230).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가족체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 한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부담을 많이 걸머지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다. 그럼에도 현대 가족의 경제적 구조와 기능이 사회변화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고 한국의 여성들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소비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 여성은 여전히 가정에 일차적으로 동일시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자신이 거하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인 주부의 역할이 변화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된다. 분명 전형적인 도시 가구에는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와 비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시 가정에는 대신 가정생활과 산업체를 연결하도록 고안된 산업 생산품들이 즐비하게 들어차있다.

스튜어트 이웬(Ewen, 1976: 164)은 이와 비슷한 미국가정의 산업화과정을 설명하면서 "비록 여성들의 가정 중심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아직도 남자들의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지만,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내용은 점점 더 외부세계의 자본주의 질서로 정의되고 구획지어졌다"고 주장했다.

신용자(1987: 37-40, 234)는 주부들이 가계라는 중

10) 정대현은 주부라는 말 자체가 여성의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의존성을 낳는 "언어적 함정"이므로 주부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Chung, D., 1986). 주부는 근대적인 가정을 상징하며 이는 또한 돈을 벌여오는 남편을 상징한다. 따라서 주부는 남편의 지위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정체감을 지닌 여성이다. 주부는 혼자서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11) 한국의 여성 공원들을 연구한 백영옥 교수와 바바라 민츠 (Barbara Mintz) 교수에게 연구결과를 함께 토의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Spencer, 1988, p 135 참조할 것

요한 경제단위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가적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여성들은 생산된 제품을 단순히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더욱 현명한 소비와 관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다시 (...) 향상된 소비생활을 가져오므로” 여성운동은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고 피력한다.

도시 중산층 여성의 경우 남편이 주된 수입원인 것이 보통이므로 가족의 경제적 자립은 이들의 목표가 아니다. 1985년에는 도시 가정의 77.6%가 남자가장이 주된 경제적 수입원이라고 했다(노미혜, 1987b: 10)<sup>12)</sup>. 1990년대까지는 한국여성들은 물질적 소비를 통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정의하도록 부당한 부추김을 받게 되었다. 날마다 대중매체, 친구들, 그리고 사회전반이 소비의 교리로 개종하도록 여성들을 다그친다. 현대 여성들은 새로운 신(神)을 섬기기위해 끊임없는 소비의 순례 여행을 다니며 산업 생산체제의 무수한 성물을 구매 획득함으로써 가족과 더불어 그 체제에 봉사하려 수고하는 것 같다. 여성들은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절대로 완전한 만족감은 주지 않는 종교의 수련수녀가 되었다. 이 신종교는 변화하는 여성의 세계와 새로운 자아의 정의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해주며 게다가 여성의 삶속에 새로이 생겨난 어려움에 대한 그럴싸한 대담까지 제공해주는 듯이 보인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종교는 점점 종류가 늘어만 가는 소비재-시장의 수요에 치밀하게 연결된 소비재-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진실에 대한 즉각적인 물증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헌신적인 소비자들의 기도는 먼 내세가 아닌 가까운 백화점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다. 구원, 또는 적어도 사소한 기적쯤은 상품 하나만 사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활방식은 과거의 대다수 한국 여성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이는

한국에 고유한 과거의 사회 경제적 세력에서 부터 “자연스럽게”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내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라는 한국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새로운 사회속의 기혼여성의 삶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생산기능이 줄어들어 생산노동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받을 길이 거의 없다. 대신 기혼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자아정체감의 재구성이 일어났다: 이제는 이들이 “주부”가 된 것이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가져온다. 현대 주부의 역할이 주부 자신이 기거하고 관리하는 집에 의해 정의된다면 현대 한국가정의 기능과 형태는 무엇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현대가정은 더이상 자급자족하는 생산단위가 아니며 흔히들 믿고 있는 통념과는 달리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의 여성들에게 이상으로 제시되는 가정은 산업주의 이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가정은 생산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소비하고 가족의 소비능력을 과시하는 영역이 되었다.

여성지의 광고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구매함으로써만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질서와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건본인 이상적인 부엌을 보여준다<sup>13)</sup>. 눈부시게 반짝이는, 접시와 그릇과 전자 취사기구와 오븐까지 갖춘 모험 부엌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 재료부터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보는 이런 부엌의 구성은 원래 선박속의 부엌구조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합리적인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 단지 핵가족 규모로 축소시킨 것이다. 그 속의 모든 물건이 대량생산된 것이니 사실 이런 부엌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 적절한 사용법을 정의하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비슷하므로, 심지어 가정마다 획일적인 물품들을 배치한 방

12) 또한 S. Y. S. Yoon (1977: 37-39) 논문을 참조할 것. 한정자 (1985)에 의하면 41.4%의 도시 주부들이 노후에 남편에게 의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13) Hart (in press) 제 6장을 참조할 것. 197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발행된 여성지에 실린 6,000여개의 광고와 1987년에 방영된 283개의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했다.

식까지도 획일적이다. 공장생산을 주도하는 합리적 효율성의 원리가 가정에까지 도입되어 주부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광고에 나오는 전분 부엌에 수납장과 조리대가 많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부엌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집에는 커다란 뒤주나 항아리 같은 대형 저장용기는 보기 드물다. 대부분의 식품은 집에서 직접 재배하고, 절이거나 건조가공하여 장기보존하지 않는다. 밖에서 구매하여 포장을 풀고 익히거나 양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엌이 주부에게 약속하는 잇점중 하나는 이전 세대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이런 주방 전기기구들과 밖에서 사오는 식품들은 한편으로 대량생산된 제품에 대한 의존성을 부추기며 직접 손으로 하는 생산으로부터 여성들을 멀어지게 하고 따라서 여성들의 수작업의 전통적인 중요성이 잃어지게 된다. 라면같은 즉석식품이나 전기밥솥같은 가전제품들은 디자인 자체가 사용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약간의 전문성이나 두뇌도 필요없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농촌 여성들은 공적사회에서, 그리고 유교적 가족 위계질서 속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했을지언정 생산기술과 음식조리 기술을 지녔기 때문에 가정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얻는 정도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의 과업과 노동은 단순하지도 않았고 "합리화"되지도 않아서 장기적인 훈련과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이런 필수적인 과업을 숙달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아마도 출산외의, 지위와 특권을 얻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권영자, 1987: 36-39)<sup>14)</sup>.

부엌은 남자들의 권력 밖의 영역이었다. 남자들은 부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활동에 대해 언어적, 상징적 통제외에는 실제적인 권력행사를 하기에 필요

한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가신(家神)들이 거하고 있던 부엌은 순수한 여성적 숙련 기술의 영역, 물질적인 영역이었다. "비록 이념적으로는 주부의 권한이 가장의 권한에 종속되는 것이지만 한국 가족안에서 주부의 역할과 지위는 상당히 중요하다. 주부의 역할과 지위는 주요 가신들이 기거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안채(부엌, 창고, 안방을 기능적으로 포괄하는 개념)를 차지하는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Lee, K. K., 1984: 189). 여성의 영역인 안채는 또한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저장품들을 두는 곳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전통적인 부엌은 또한 한 가족내 여성들 사이의 경제적 물질적 유대를 제공했다. 모내기나 벼수확이 집약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온 가족의 협동과 상부상조를 요했던 것처럼, 음식의 생산도 마찬가지였고 집안 여성들은 종종 여럿이 공동으로 생산을 해야 했다. 이는 한편 집단의식과 유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Choi, J., 1977; Kim, Y., 1979; Lee, D. W., 1986: 232-235; Yoon, H. J., 1986: 36-44).

한국의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참여했던 반면 남자들은 여성의 세계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근래에는 노동을 절약해주는 각종 현대적 서비스와 즉석식품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집단생산의 유대가 해체되고 대신 개인화되고 단순화된 음식제공 업무만이 남았다. 현대 부엌의 미리 가공된 식품을 조리하는 기능은, 전통적인 부인으로서와 어머니로서의 기술에, 그리고 가족의 내부적 유대에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했던 과거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보여준다. 남편들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거나 냉동만두 포장을 푸는 따위의 일을 쪼쪼매며 서툴게 시도하는 광경은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광고들속에서 점점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일화들은 남편이 결국 즉석식품을 능숙하게 뜯어 데울줄 알게되어 온가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소비행위

14) 윤후정의 제주도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성들의 경제적 생산 능력은 흔히 의사결정권으로 연결된다. 농가의 주부들은 가정의 의사결정에는 강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농사 관련 의사결정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다 (Yoon, H. J., 1986).



속에서 일체가 된다는, 상투적이고 진부할 지언정 행복한 결말을 끌어낸다. 그러나 이런 연속극 이야기는 첫눈에 보기처럼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두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째,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 식품은 어떤 바보천치라도 숙달할 수 있을 만큼 조리가 쉬워서 환영받는다. 과거의 힘겨운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었음을 암시한다. 소비 형태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묘사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숙련자에게도 충분히 쉬운 제품의 기능성이 개인적인 기술보다 중요해진다. 일단 전문기술을 응용할 능력이 박탈된 후에는 기술 자체가 필요없어지고, 기술이 불필요해지면 갖고 있던 기술도 퇴보하게 되어, 상품의 간편성이 현대적 생산품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과거의 힘겨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주부들이 자신들의 작업 현장에서 지식과 통제를 잃어가는 과정에 통합되어져온 것이다 (Ewen, 1976: 166).

앞서 언급한 광고속의 미니 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한가지 못지 않게 중요한 논지는 비록 한국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있지만 한국적인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흔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광고속의 드라마는 오늘날 남편들이 과거에는 금지된 영역이었던 부엌에 들어가지만 부인은 이 침입자에게서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 할 것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마디로, 가족은 함께 소비하며 현대식 생활을 함께 즐긴다는 주제를 전달한다.

이 두번째 메시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현실을 변명해줄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호도한다.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의 착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호소력을 지닌다. 주부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내에서의 중심적인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현대의 가정에서는 소비가 주부들이 날마다 섬기고 모셔야 할 새로운 가신(家神)이며 부엌마다 그 성물(聖物)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과거의 미신적인 가신들과는

달리 이 “새롭고 보다 향상된” 가신들은 날마다 더 할나위 없는 약속을 이행해준다.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되고 최소한의 수고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다. 소비주의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합리화 할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탁월하게 어울리는 생활양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집안 환경 사이에 새로이 만들어진 이 조화를 위해 주부들은 어떤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일까? 갈수록 주부의 노동과 기술은 가정에서 여성의 생산자적 지위를 보존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제 주부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필요성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여기에서 소비재와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의 사회적 측면사이의 연계가 드러난다. 중산층 한국 가정에서는 생산노동의 거의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개인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남자에게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로인해 회사에 가족의 생존에 달려있는 일련의 경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중산층여성에게 할당된 과업은 가정에서 상품을 소비하여 생산과 소비의 순환주기를 완성하는 일이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시장을 위한 생산을 담당하며 여성들은 시장을 위한 소비를 한다. 그러나 이런 역할 분담이 자동적으로 남녀간에 서로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여성들은 상품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며 돈은 노동의 댓가로 얻어지므로 여성들은 돈을 줄 남자(남편)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생산활동을 하는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경제적인 우위에 놓이게 된다.

한편 남성들은 개인적으로 여성들과 똑같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어떤 여성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사회의 직업생활에서는 규격화된 근로자들인 남성들이 쉽사리 대체가 가능하듯이, 현대 주부의 역할은 가정 소비생활의 합리화된 한 부품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무 여성들이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 IV. 현대적인 주부역할을 배우기

어느 다른 사회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적 성역할 담론은 진공상태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성역할은 인생의 초기부터 배우며 일상생활속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국가는 일찌기부터 어린이들에게 특정한 성역할 담론을 심어준다. 국가가 관장하는 교육체제는 아주 감수성 예민한 나이의 어린이들에게서 부터 시작하여 남성성 여성성의 이미지를 널리 보급하고 영속시킴에 표현해주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공 기관일 것이다. 즉, 학생들이 그런 이미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 이미지는 다수 대중이 성역할을 표현하고 해독하는 공동의 건축소재가 된다. 교육체제를 보완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담론은 다수 대중에게 전달되어 특정한 성역할 담론을 재확인하고 재차 강조한다<sup>16)</sup>.

노소를 가릴 것 없이 여성들은 지식과 물리적 현실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소비자 교육을 받는다. "현대의 주부들은 자기 '장바구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칼로리'를 계산할 줄 알아야한다 (Ewen, 1976: 171)." 여성지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여성은 누구나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간지인 동아일보를 예로 보자. "올바른 가정관리"에 관한 기사는 늘상 실린다. 같은 신문의 한 기사는 연세대에서 실시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주부들이 조리를 담당하는 가정에서 중요한 식습관의 유형이 나타났다... 주부들은 아직도 재료를 눈대중으로 어렵짐작해서 쓰고 있으며... 약 33.4%의 주부들만이 식단을 미리 계획한다. 연세대 연구는 산업화가 간편한 식생활을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동아일보 1988년 9월 12일자)."

위의 기사는 한국인들은 "과학적인 습관에 기초한 식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책자로 인쇄된 것이든 인터넷에 띄운 것이든, 한국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여성지들은 현대적, 과학적 합리성의 미덕과 필요를 여성들에게 강조한다. 매달 이 여성지들은 그 합리화된 과정에 기초한 요리법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위해 주별 또는 월별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 계획"을 독려한다. 여성지들은 흔히 연말 부록으로 가계부와 새해 열두달 동안의 식단을 제공한다.

"과학적인 주부"의 양성을 돕기 위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린 현대 여성들에게 가정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과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실례들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교육부에 의해 선정되며, 교과서 저자들은 각권에 등장하는 역할 모형과 개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박부권, 1987: 229).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는 사진과 글을 통해 현대적

15) 남녀간의 불균형한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1989년에는 "모래성"이란 텔레비전 미니시리즈가 방영되었는데 남편이 다른 젊은 여성을 만나 집을 나가버린 한 주부가 등장한다. 특히 흥미로웠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주부는 십대소녀인 딸에게, 장차 남편에게 기대지 말고 실용적인 기술을 익혀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십여년이 지난 2000년 가을에 시작되어 2001년 1월 현재까지 방영중인 텔레비전 드라마 "아줌마"에서는 주눅들어서 살던 장손집 만며느리인 전업주부가 가부장제도의 부당함에 의식화되고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는데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주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아줌마 이혼만세" 한겨레 21, 2001년 1월 31일자 참조). 여성들의 자립의식이 일각에서는 커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승경은 (Kim, S. K., 1997) 면담한 여성들중 25%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6) 1996년 통계에 의하면 20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들은 집에서 주 평균 24.2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한다. 전체 여성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993년의 20시간에서 1996년의 23시간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0c).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전혀 완곡하지 않게,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적 시설과 문명의 이기를 갖춘 즐겁고 효율적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다. 사실 이제는 집이 더이상 “집”이 아니라 시설이 중심이 된 “주거”나 “주택”으로 변형되어버렸다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1989: 243-244). 가정 교과서는 두어 페이지에 걸쳐 어린 예비주부들에게 “주생활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 주생활을 특징짓는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이 단원의 “주거의 기능”과 “기능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같은 제목들에서 드러난다 (같은 책: 245-246).

같은 교과서에 묘사된 “다이닝 키친 (같은 책: 254)”은 전부 대형 냉장고와 가스 레인지, 오븐, 수납장, 조리대등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부엌들은 동선 합리화를 도모하는 기능주의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여성지에 나오는 부엌과 똑 같은 종류이다. 기능적인 주거와 그 속의 “다이닝 키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물론 효율성을 목표로 합리화되어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상품의 구매와 가사노동의 수행은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하며)... 표준화된 일과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sup>17)</sup> 직장세계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주부들의 세계속으로 확산되었으며 공장식 생산라인은 가정속에 자리잡고 앉았음이 분명하다.

암묵적으로 교과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공장의 효율성을 재현해내며 인간관계면에서도 공장 생산적인 요인을 가져오는 이념이자 방법론인 합리성을 추종하라는 것이다. 생산실적을 올려야 하는 직장에서는 효율성 채고에 전념하는 과학기술자 계층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생산활동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생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작업조건, 방법 및 목표를 결정한다. 노동자들은 직접 생산

을 하면서도 노동의 방식과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거의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다. 이와 비슷하게 주부들의 새로운 세계도 실제 가사노동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식품영양학 전문가들에 의해 정의된다. 가정 과목은 학생들에게 민간지식과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론은 평가절하하고 대신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친다<sup>18)</sup>. 교과서를 보면 근본적인 모순이<sup>19)</sup>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주 암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신세계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한다<sup>20)</sup>.

이런 사고를 후에 고학년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4학년 교과서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가정관리법을 세심하게 가르친다. 다음의 인용구에서 잘 나타나듯이 가정관리란 “직업”의 수행에서 합리성이야말로 훌륭한 가족생활과 조화로운 삶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가 할일을 찾아서 책임있게 해내는 것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기쁨을 주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즐겁고 보람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생활계획을 세워놓고 이에따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계획을 세워 일하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고 다음 일을 찾아서 하기도 쉽다. 우리도 생활 계획을 세워 표를 만들어 놓고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보자. (실과 4학년, 1987: 12, 17)

여기서 가족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생활을 매우 미화하고 있지만, 권위는 더이상 가정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1989: 245). 중학교 가정교과서도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다: “오늘날 조화롭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려면 과학적인 계획과 관리를 해야만 한다.” (p. 20)

1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효율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가장 명백한 예로 “식생활과 건강” 단원(pp. 65-93) 을 볼 것.

19)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새로운, 과학적인 방식사이의 모순 (역자 주)

20) 과거의 요소들이 진보된 현대사회에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일종의 진화론적인 시각은 사회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일례로 초등학교 사회 4-2 (서울, 문교부), pp. 100-105를 들 수 있다. Hart (2000) 논문은 또한 참조할것..

현대적 개발을 지지하고 반영하는 이념에서 나온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현대적 가정에 대한 소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며 공장생활식 효율성에 대한 학습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교육체제는 또한 어린 여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예비주부로 정의하도록 가르친다. 주부라는 역할 자체가 현대적 가정의 속성이므로 여학생들의 자아개념은 또한 자동적으로 현대가정에 연계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4학년 실과 교과서에는 한 모녀의 사진이 등장한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릿수건을 쓴 차림으로 진공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하고 있고 딸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엎드려 가구의 먼지를 닦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책은 남녀학생 모두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한가지 중요한 의미에서는 남녀공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뚜렷이 정의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두가지 다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성별 집단에 할당된 역할과 활동은 분명히 성차별적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책 앞쪽에 나오는 여섯장면으로 된 그림을 보면 네 장면을 여자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활동에 할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관에 나가 우체부 아저씨에게 인사하기, 설거이하기(앞치마를 두르고 머릿수건을 쓰고), 빨래 널기(여기서는 머릿수건은 빠져있지만 여전히 앞치마를 입고 있다), 식료품 구입하기이다. 반면 남자어린이의 활동으로는 자기 이불 펴고 개기와 마당 쓸기를 묘사하고 있다.

1986년 당시에 사용되던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과 고정관념을 조사한 김정자(1987)의 연구를 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이 드러난다. 주부는 다른 어떤 여성의 역할 보다도 두배 이상 자주 교과서에 등장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 전체의 65.2%가 기혼 여성이었는데 비해 남자들은 19.2%만이 기혼자로 묘사되었다. 직장생활과 관련된 맥락에 여성이 등장한 경우는 17.8%에 불과했다. 반면 직장과 관련하여 남성이 등장한 경우는 69.2%였다. 직장 여성이 나타나

경우 그 직종은 다 합쳐서 11가지 밖에 안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40개의 직종이 묘사되었다 (김정자, 1987: 65-79)<sup>21)</sup>.

필자의 다른 한 연구는 1987년과 1991년에 사용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성들은 전체 등장인수의 44.9%에서 취업자로 묘사된 반면 여성들은 25.2%에서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더구나 여성들은 대다수가 늘 집에만 붙어있는 것처럼 그려졌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조차도 41.2%가 집에 있는 또는 가족과 함께 있는 장면을 그린 반면 남성들은 가정에서 또는 가족과 함께 그려진 것이 8.9%에 불과했다 (Hart, 1992).

현대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런 묘사는 물론 교사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말과 행동에 의해 강화된다. 1987년말에 이루어진 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직업)는 남자들에게 적합하여 남을 보호하는 지위는 여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믿고 있었다. "남을 보호하는 지위"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했다. "여성이 라면 누구나 요리와 바느질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들의 믿음은 현저히 전통적인 스타일의 현대 주부를 잘 정의하고 있다 (동아일보 1988년 1월 20일자). 그러나 이는 여성들의 현대식 "행복"을 가져올 능력, 따라서 "훌륭한 주부"가 될 수 있는 능력은 한편 소비재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김정자의 연구는 또한 교사들도 교과서의 성역할 담론을 장려하는 데 일조한다고 밝혔다. 많은 교사들이 여성의 일차적 의무는 "가정"이라고 주장했고 부인의 사회적 지위를 남편의 지위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김정자, 1987: 78-101).

교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화와 전통적 가치를 심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 같지만 이런 교육은 사실 문제가 많다. 이들 교사들은 많은 한국 여성들이 감당해야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문화적인 모순을 본의아니게 부채질하고

21) 또한 김미숙의 석사논문, 산업사회에서 도시 주부의 역할에 관한 태도연구 (1981)를 참조할 것 (p. 19).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비전통적인 가족 상황속에서도 전통적인 부담을 지고 사는 오늘날의 한국 여성들은 갈수록 정신적 긴장과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사람들의 사고와 무의식적 과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는, 겉보기에는 빈틈없어 보이는 사고와 행동사이의 연계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일찌기부터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다. 서울시내의 유아원들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배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들과 여아들을 따로 나누어 그룹을 만드는 경우가 흔하며 각기 성별에 적합한 태도를 습득하도록 가르친다. 여아들에게는 좀더 수동적인 역할을, 남아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권장한다. 심지어 교사들은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명백히 성차별적인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빠는 안방에서 신문보시고, 엄마는 그 옆에서 바느질해요. 책상앞에 우리오빠 에이비씨, 언니는 쓸라쓸라 피아노치죠. 나는요 인형아기 두팔에 안고, 가만히 자장노래 불러 주지요. 우리모두 다른 일 하고있지만 사이좋고 의 좋은 우리식구죠."<sup>22)</sup> (최기영, 1987: 112-116, 119-120, 130)

## V. 국가적 개발, 개인적 문제, 그리고 집단적 반응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따르는 개인적 모순에 직면한 여성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반응하였다. 아마도 가장 흔한 즉각적 반응은 앞서 지적했듯 여러가지 심리적인 갈등과 역할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박정희와 유영주(2000)의 연구는 전업주부들과 취업주부들 사이에 우울증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을 지적하면서,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취업주부들은 이중적인 역할 갈등을 겪고 있어 취업 자체가 심리, 정서적 복지감을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두 집단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은 우울감과 역상관이 있었다.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 주부들중 일부는 남성들에게서 도움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자각하에 여성들 스스로 서로 돕는 단체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Kim, Y., 1986). 다른 일부 주부들은 직접 자산을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가지 투자를 함으로써 남편과의 경제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권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1985년에는 부인들중 4.9%만이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의 1.1%만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자가용차를 소유한 부인은 아주 소수였다. 1995년까지는 여성들이 전체 주택의 약 16%를 소유했다 (김형욱·주재선, 1999: 97). 그러나 이런 방식은 현대의 체제적인 문제의 근원을 바꾸지 못하며, 집단적인 문제를 여성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뿐이다. 따라서 주부들의 이런 해결책은 남편의 권위와 외형적인 지위를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결혼관계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어떤 주부들은 가정 밖에서 쾌락을 찾아나서거나 새로운 사회가 가져온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기도 한다<sup>23)</sup>.

이런 개인화된 해결책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의 체제적인 근원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현대의 부부는 겉보기에 전통적 가족 역할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여성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제한적인 사고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 남자들에게 부부관계의 변용은 불가해한 것이다. 남성들이 현대적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추겨지는 동안, 남성들의 경제적인 지배와 여성들의 역할 갈등이란 결과는 연속성의 착각속에 가리워졌다. 이런 간극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 부

22) 유경순 요, 나운영 곡

23) 복부인 현상, 제비족, 중년 여성들을 위한 호스트바, 그리고 춤바람등의 "사회문제"는 모두 최근 10-20년사이에 생겨났다. 남자들이 재빨리 나서서 이런 추세를 비판하는 것도 놀랄 일이 못된다. 남성들 자신은 흥동가를 들락거리면서도 여성들의 "도덕적 타락"은 손쉽게 비판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신체가 훈련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적한 것은 한가지 흥미로운 설명이 된다.

인에게 잘못된 믿음과 고정관념적 역할 모형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대로 사용하게 된다 (윤양현, 1988: 62-63; 홍성례·유영주, 2000: 71-74.). 가정에서의 남편들의 일상적인 부재는 부부를 더욱 화목하게 하기 보다는 상투성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변용과 연속성을 결합시키는 과정,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전통의 걸모습을 조정하는 과정, 물질 문화를 수입하는 한편 동시에 과거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한국사회속에 엄청난 모순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가져왔다. 한국 가족은 구조적으로 핵가족화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가족이데올로기의 요소들에 집착한다. 가족은 사회생활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도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시간을 보낸다.

산업화는 자기만족과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적인 충족을 조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갈수록 시장의 필요에 의해 정의된다. 가족중심, 협동, 그리로 조화로 운 인간관계라는 가치는 더이상 사회적 물질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이런 가치들은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타당성을 지닌 실용적인 진리였다. 오늘날 이들은 연설조로 또는 교조적으로 들릴 만큼 구식이되었다. 한때는 전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통적인 것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통의 매력은 잃어진다.

이런식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모순이 생겨나고 즉각적으로 잘못 인식된다. 정부는 전통적 윤리와 행동을 오늘에 되살릴 것을 자주 강조하지만 거의 호소력이 없다. 이는 산업생산과 산업소비 사이의, 한 사회와 그 문화 사이의, 또는 사람들과 직접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단순한 전망이요 소망사항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모순되게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여성들은 “후진적”인 전통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당당한 시민들이 되었음에도 (Kandiyoti, 1994: 376), 한국문화는 잘 보존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현대성과 개발은 과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남녀를 불문하

고 전통에 기반한 정체감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물질적인 삶을 향상시켜준다고 믿는 것 같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선진화하면서 이 나라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선진화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 남자들은 중산층 지위를 획득한 주부들을 그저 복많은 여자들로 여기며, 남편 덕을 입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먼 제이컵스가 지적했듯이 “몇몇 지식인들을 제외하면... 사회환경이 최소한의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는 듯하면...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한국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Jacobs, 1985: 300).”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한 국가적 개발의 과정은 이런 단선적인 담론이 시사하는 것 보다 더 복잡한 것일 수도 있다. 국가개발과 여성개발은 상호관련되어있는 것이, 국가가 여성개인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정의하는 한편 여성 개인의 일상적인 존재는 국가적 개발에 공헌하고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집에 (사실 그런 이상적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음에도) 머물러있는 여성을 이상화하는 대중적 담론에 저항하는 성공적인 전국적 규모의 사회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여성들의 산업체 취업은 증가했는데도 일반적인 기대는 여성이 궁극적으로 가족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가정에서 한국여성의 삶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주장도 액면가대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여성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되어 여러가지 용역을 제공한 것이 결국 보람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가져온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할 때다.

현대 사회는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으로 얼룩져있다. 1983년 통계를 보면 기혼 여성의 절반이 심리적 소외감과 배우자의 폭력과 같은 문제를 경험했다 (Lee, D. W., 1986: 246).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또 한 연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61%가 남편의 폭행과 학대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서명선, 1985: 98)<sup>24)</sup>. 1998년의 한 연구는 부부 176쌍을 조사했는데 남편들 중

65%가 지난 일년 간 부인에게 심리적인 공격을 가했으며 46%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남편들 자신의 보고) (김득성·김정옥·송정아, 2000). 기혼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형사정책연구원의 1996년 연구에서는 229명이 (15.5%) “아내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8).

가정 밖의 “개발된” 사회 역시 그리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1988년 통계를 보면 조사대상 여성 2,264명중 48.6%가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으며, 46.3%는 음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14.1%는 강간의 위협에 처했었고 7.6%는 실제로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의 공식적 신고 건수는 훨씬 적어서, 1998년에는 신고된 강간 건수가 여성 10만명당 12.8명이라고 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8).

다수 지식인 여성들과 여성운동가들은 “서구적 핵가족 체제도,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한국의) 전통적 권위주의적 체제도 아닌, 모든 가족원이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가족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Yoon, H. J., 1986: 71)<sup>24)</sup>. 이들은 여성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 시장에 기초한 경제 체제에 깊이 연루된 가족 체제에 속해있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가족은 겉모습은 안정되어 보이나 실은 갈수록 심리적인 붕괴라는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가족의 불안정성은 사회전반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D. W., 1986: 232)<sup>25)</sup>.”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는 이혼, 별거, 유기등이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우한 계층일수록 배우자나 자녀 유기가 많기 때문에 결손가정은 더욱 흔하다.

이제 결손가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중산층에서는 이런 문제가 덜하지만 가족간의 대화와 애정의 결핍등과 같은 심리적인 해체와 가족원간의 소송등이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Lee, D. W., 1986: 256).

여전한 가부장적 규범과 핵가족화로 인해 여성의 생산능력은 제한되고, 반면 자녀양육과 가정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다시말해 여성들은 가정에 의해 정의되고, 그 가정은 다시 시장생산에 의해 정의되며, 시장생산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주부들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자족할 수가 없는 것이,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상형은 주부가 집안에 머물러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대착오적인 역할을 그 역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근접환경 속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주부의 개념이 부상한다. 이러한 “현대 여성의 삶의 굵아터진 모순”은 핵가족속의 많은 전업주부들이 심히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막연한 불만과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불편한 심기가 흔히 등장했다. “역할 상실로 인한 불만족이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동원 (Lee, D. W., 1986: 231)은 묘사한다.

오늘날 한국의 기혼여성들의 절반은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주부들 중 사십 퍼센트나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Lee, D. W., 1986: 249). 한국의 이혼율<sup>27)</sup>은 1950년의 4%에서 1995년의 16.6%로, 1998년에는 무려 32.1%로 계속 증가해왔다 (노미혜, 1987a: 180; 동아일보 1988년 11월 16일자; 변화순, 1987: 105-106; 한국 갤럽, 1987: 66;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0b).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의 급격한 이혼율 증가는 실로 눈

24) 고(故) 이태영 박사는 이 숫자도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다.

25) 강숙자(1987)는 한국여성들은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해야하며 서구의 급진주의 여성해방이론을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6) 김정자(1988)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가족중 16%가 약간 못되는 수가 편부모 가정이라고 한다. 1995년에도 이 수치는 별로 변화가 없어 16.6%였다 (김형옥·주재선, 1999: 86-87)

27) 이혼율은 이혼건수를 결혼건수로 나눈 것이다.

에 된다. 최근의 국민 경제의 타격이 결혼의 안정성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sup>28)</sup>.

많은 연구들이 한국 주부들이 겪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취업부부이든 전업주부이든간에 일반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구향숙, 1985; 윤양현, 1988; 이해성, 1984; Choi, I., 1985; Lee, D. W., 1986). 영등포 YWCA의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보면 내담자의 50%가 중산층 여성이었는데 이들중 80%가 삼십대말에서 사십대 사이의 연령이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의기소침, 우울, 그리고 우울증이었다<sup>29)</sup> (한혜경, 1985: 2-6, 22-28). 정신과 의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경제적인 종속과 가정에서의 과중한 책임이 합쳐진 것이라고 본다. 자녀교육 스트레스, 주부 소외감, 남편의 만성적인 늦은 귀가, 성적 불만족, 남편의 부정(不貞)과 같은 것을 구체적인 이유로 주로 들지만 물론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한혜경, 1985). 이혼 사유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든 이유는 1998년 통계에 의하면 "부부문제"였다 (김형옥, 주재선, 1999: 81).

여기까지 주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여러 증상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배적인 대중 담론과 국가 정책은 저항을 키워나갈 틈을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산의 여성 노동자들을 연구한 김승경은 이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갈등 상황에서 활기차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Kim, S. K., 1997). 이들의 저항방식은 개인적, 집단적인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공장내의 구체적인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당면한 노동조건을 만들어내는 거대체제의 권력에 대해 적어도 간접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 여성들은 누구나 그렇듯 자신이 처한 근접환경의 조건과 사회적 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들은 또한 여성의 정체감이 지배담론과 환경조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구조적 권력에 여러 방식으로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여년 전 한국주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필자는 여성들의 저항이 점차 힘을 얻으며 지역단위와 전국단위로 조직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 심리적 문제들과 물질적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경향, 주부들의 자신감 결여등은 아직 남아있지만 많은 주부들은 또한 새로운 해결방식을 찾고 있다. 여성단체등은 작은 당면 과제들의 해결과 보다 광범한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다.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성희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노동조합등의 단체들이 서울, 인천, 마산, 부산등에 여성노동 평등권을 위한 상담소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차별 대우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조언과 상담을 제공한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또한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 모두 저항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나아가, "개발"과정 자체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 특정인의 권력을 공고히하는 데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또한 "약자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일례로 인터넷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언론과 여성포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개발원, 21세기 주부문화 연구소등 여성단체와 기구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중적 토론과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놓았다.

한국 여성들은 점점더 자본주의적 개발의 사고방식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속에서, 그리고 변화를 이루어내려는 자신의 의지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여기서 다른 사회의 예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미국 여성들은 1920년까지 투표권이 없었다<sup>30)</sup>. 여

28) 통계청의 1997년 인구동태보고에 의하면 1997년 한해동안 이혼건수는 93,200건으로 전년대비 16.9%늘어났다. 이혼사유로는 역시 부부불화 (81.0%)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일보 1998년 11월 6일자 참조)

29) 이 연구는 여성 28명의 사례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30) 1920년에 미헌법의 수정조항으로 여성참정권이 부여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주민 여성들은 여기서 제외되었고 흑인들도 남녀불문하고 다른 장애들로 인해 60년



성 참정권은 국가가 어느날 갑자기 여성에 대한 사고와 견해와 기대를 바꾸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오랜 세월을 걸친 집단적 투쟁의 결과로 얻은 것이었다. 수잔 앤소니(Susan B. Anthony)는 1870년대에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여성참정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당시 불법투표를 감행하다가 “부녀자들에게 합당한 자리는 집안”이라는 역할 규범을 강요하던 남성들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오늘날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것은 그를 비롯한 여성 선각자들의 투쟁의 덕분이다.

“평범한” 한 주부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낸 또 다른 예는 로이스 깁스(Lois Gibbs)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1942년부터 1950년 사이에 어떤 화학약품 회사가 뉴욕주의 버팔로 근처 지대에 폐기된 화학약품을 매립했는데 이후 1978년까지 그 매립지에 가옥 239채와 공립학교가 건립되었다. 결국 수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매립되어있는 유해 쓰레기로 인해 병을 얻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도 조사결과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서도 그 선에서 덮어두려했다. 그 지역의 주부였던 로이스 깁스는 아무런 정치경험도 조직의 경험도 없었으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반사회회를 조직하여 회장임무를 맡고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계속하도록 압력을 넣으며 끊임없는 민원과 회의와 시위를 주도했다. 다른 지역 사회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합세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정부는 2,000여곳에 이르는 유해쓰레기 매립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바탕으로 무려 262억불에서 441억불 사이의 예산을 들여 이들 매립지들을 정화했다(www.epa.gov/region02). 이 모든 것이 한 주부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다.

주부들이 이룬 변화의 세번째 예로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어머니들의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약자로 MADD)”의 성과를 들겠다. 매드(MADD)는 1980년에 주부이자 엄마였던 캔디 라이트너(Candy Lightner)와 캘리포니아에 사는 다른 소수의 주부들에 의해, 한 13세 소녀가 뺑소니 운전사

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영향을 받아 처음 조직되었다. 그 뺑소니 운전사는 세번의 음주운전 체포와 두건의 유죄판결경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징역살이를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지 이틀만에 또 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운전중 과실치사” 유죄답변 거래를 해서 겨우 2년형을 받았으며 그나마 감옥 대신 감화소에, 나중에는 사회복귀 적용시설에 보내졌다. 매드(MADD) 주부들은 분노(mad)하는데 그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현재 매드(www.madd.org)는 미국 전역과 여러 다른 나라에 600여개의 지방조직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음주 운전과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30여개의 법률을 시행케하는 데 성공했다. 이 괄목할 성취가 캔디 라이트너라는 한 주부의 활동의 결실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가 전부 주부들의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룰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한국의 21세기 주부문화 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주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여성 일반, 특히 주부들이 국가적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국가의 의도이자 희망사항이었다. 여성들은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희생하고 새로운, 산업사회형 가족 단위에 봉사함으로써 나라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집단조직을 통한 힘의 결집과 국가주도형 개발담론과 자기 개인간의 관계를 이해한 개인적 의식화를 통해 여성일반, 특히 주부들은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에게 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를 도움으로써 말이다.

## 【참고문헌】

- 강숙자(1987). 한국여성운동의 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연구 5(1).  
 강이수(1998).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 여성과 사회 9, 23-39.

대까지도 실제 투표에 참여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

- 구향숙(1985). 도시 중년기 주부의 결혼적용도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자(1987). 농촌여성의 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3).
-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미숙(1981). 산업사회에서 도시주부의 역할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영란(1998).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9, 64-79.
- 김정자(1987).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여성연구 5(1).
-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3).
- 김형옥·주재선(1999). 1999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노미혜(1987a). 여성의 취업 실태조사. 여성연구 5(1).
- 노미혜(1987b). 여성관계 사회통계및 지표 (2). 여성연구 5(2).
- 노신영(1985). 여성 백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동아일보(1988). 1월 20일자, 9월 12일자, 10월 23일자, 11월 16일자
- 문교부(1989). 가정. (고등학교 교과서) 서울: 동주사
- 문교부(1987). 실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박부권(1987). 교육현실과 교사. 서울: 돌베개
- 박정희·유영주(2000).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5-174.
- 변화순(1987).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가족과 이혼의 비교연구. 여성연구 5(4).
- 서명선(1985). 아내 학대에 관한 이론적 접근. 여성연구 3(3).
- 신경아(1998).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90년대 모성의 변화. 여성과 사회 9, 159-180.
- 신용자(1987). 소비자운동과 여성운동. 여성연구 5(3).
- 윤양현(1988). 준거집단을 통해서본 여성의식 발전의 장애. 서울: 여성문제 연구회.
- 이혜성(1984). 여자 교수의 성취동기에 관한 사례연구. 여성학논집 12월호.
- 정일선(1998). 여성과 경제활동. 우리사회연구학회, 현대사회와 여성. 149-196. 대구: 정림사.
- 조희금·이기영·이연숙·김의숙(2000). 한일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14.
- 중앙일보(1998). 11월 6일자.
- 최기영(198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관한 참여관찰연구. 여성연구 5(3).
- 하트 데니스(1990). 한국주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연구 8(3).
- 한겨레21(2001). 1월 31일자 (제 344호).
- 한국갤럽연구소(1987). 한국 주부의 생활과 의식 연구. 서울: 한국 조사연구소.
- 한정자(1985). 도시주부들의 가치관 연구. 여성연구 3(3).
- 한혜경(1985). 한국도시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홍성례·유영주(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Abelmann, N.(1997). Narrating selfhood and personality in South Korea: Women and social mobility. *American Ethnologist* 24(4).
- Chizuko, U.(1987). Genesis of the Urban Housewife. *Japan Quarterly*, April-June, 1987.
- Cho, H.(1985).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in Korea. In Y. Kim (Ed.) *Women's Studies Forum*.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 U.(1985). Industrialization and Female labor Absorption in Korea. In Y. Kim (Ed.) *Women's Studies Forum*.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i, I.(1985). Toward Development of Poor Women in Urban Korea. In Y. Kim (Ed.) *Women's Studies Forum*.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ent Institute.
- Choi, J.(1977). Family System. *Korea Journal*, May, 1977.
- Chung, D. H.(1986). Women's Liberation and the Korean Ordinary Language. In S. Chung (Ed.), *Challenges for Wome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Chung, S.(1986). Socialization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School and Social Education. In S. Chung (Ed.), *Challenges for Wome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Ellul, J.(1974). *Propaganda: The Formation of Men's Attitudes*. New York: Vintage Books.
- EPB(1989). *Korean Economic Indicators*. Seoul: Economic Planning Board.
- Ewen, S.(1976). *Captains of consciousness*. New York: McGraw Hill.
- Hart, D.(1992). Early Education and Gender Stereotypes: Korean Elementary School Books and the Delimitation of Women's Roles. Paper presented at the Mid-Atlantic Regio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Westchester, PA. 1992.
- Hart, D.(2000). Proclaiming Identity by Claiming the Past: Nationalism and Modernity in North and South Korean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for Korean Studies Eleventh Annual Conference, Songnam, South Korea, June 27, 2000.
- Hart, D. (In Press). *From Tradition to Consumption: The Construction of a Materialist Culture in South Korea*. Seoul, Korea and Somerset, NJ: Jimoondang Press.
- Jacobs, N.(1985). *The Korean Road to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andiyoti, D.(1994). Identity and its Discontents: Women and the Nation. In P. Williams and L.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S. K.(1997). *Class Struggle or Family Struggle?: The Lives of Women Factory Workers in South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S. Y.(1985). Study on Labor Conditions of Female Work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Small-Scale Manufacturing Industries of Garments, Electrical Goods and Electronics. In Y. Kim (Ed.), *Women's Studies Forum*.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Y.(1986). Women's Movement in Modern Korea. In S. Chung (Ed.), *Challenges for Wome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Y. (Ed.)(1979). *Women of Korea: A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1945*.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 Korean Information Service(2000). <http://www.Korea.net/Overview/SocialWelfare/Women.asp>, 6/6/00.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1990). Sexual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s. <http://www.kwdi.re.kr>, 6/6/00.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1998). Sexual Violence in Korea. <http://www.kwdi.re.kr>, 6/6/00.
- Lee, D. W.(1986). The Changes in Korean Family and Women. In S. Chung (Ed.), *Challenges for Wome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Lee, K. K.(1984). Family and Religion i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Korea. *Senri Ethnological Studies* II.
- Ministry of Labor(2000). Survey Report of Wage Structure: 1999. <http://www.kwdi.re.kr>, 6/6/00.
- Moon, S.(1998). Begetting The Nation: The Androcentric Discourse of National History and Tradition in South Korea. In E. Kim & C. Choi (Eds.),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

- alism*. New York: Routledge.
- National Statistics Office(2000a). Annual Report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Survey(1996-1999). <http://www.kwdi.re.kr>, 6/6/00
- National Statistics Office(2000b).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1989, 1999). <http://www.kwdi.re.kr>, 6/6/00.
- National Statistics Office(2000c). Social Indicators in Korea.(1995, 1999). <http://www.kwdi.re.kr>, 6/6/00.
- Spencer, R.(1988). *Yogong, factory girl*. Seoul: Royal Asiatic Society.
- Yoon, H. J.(1986). The Nature and Direction of Korean Women's Issues. In S. Chung (Ed.), *Challenges for Wome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Yoon, S. Y. S.(1977). The Emergence of the Fourth World: Korean Women in Development. *Korea Journal, February, 1977*.

번역: 엄영래